

시장동행(4월) 몽골-한국 항공 노선 운항 현황

2026.04.24(금) / 울란바토르지사

□ 몽골-한국 간 주요 노선 운항 개요

○ 전체 시장 구조

- 현재 몽골-한국 간 항공시장에는 총 8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으며, 이 중 몽골 국적 항공사 2개사와 한국 국적 항공사 6개사가 정기 노선 중심으로 취항하고 있음
- 주요 취항 도시는 인천을 중심으로 부산, 청주, 대구 등이 포함되며, 제주 노선은 전세기편 형태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
□ 2025년 한몽 항공 시장 점유율

○ 2025년 인천노선 현황

- 몽골 민간항공청(Civil Aviation Authority of Mongolia)에 따르면 울란바타르-인천-울란바타르 노선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음
- 가장 수요가 높은 ULN-ICN-ULN 노선은 2025년 기준 총 642,850명의 여객을 수송하였음
- 해당 노선에는 몽골 항공사인 MIAT, Aero Mongolia를 포함하여 대한항공, 아시아나, 제주항공, 티웨이 등 총 6개의 항공사가 운항함
- 인천 노선의 2025년 여객 수는 2024년 대비 약 1%(약 8천명) 증가하였으며,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66%(약 255천명) 증가
- 관광 성수기의 영향으로 6~8월 기간 동안 인천 노선의 여객 수요가 증가하며, 동기간 평균 좌석 이용률은 약 83% 수준임

<표1> 2025년 인천 노선 항공사별 점유율

					
43%	7%	24%	11%	10%	5%

출처: Civil Aviation Authority of Mongolia

<표2> 2025년 인천 노선 수송 실적



출처: Civil Aviation Authority of Mongolia

○ 2025년 부산노선 현황

- ULN-PUS-ULN 노선에는 MIAT, 에어부산, 제주항공, 진에어 등 총 4개의 항공사가 2025년 항공편을 운항함
- 부산 노선 시장점유율은 아래표와 같으며, 2025년 몽골 출발여객은 42,922명, 몽골 도착 여객은 42,214명으로 집계됨

<표3> 2025 부산노선 항공사별 점유율

			
31%	15%	34%	34%

<표4> 2025년 인천 노선 수송 실적



출처: Civil Aviation Authority of Mongolia

□ 2026년 한몽 항공편 운항 현황 및 중동사태 영향

○ 2026년 항공운영 현황

- 2026년 몽골-한국 노선에는 MIAT, Aero Mongolia,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제주항공, 에어부산, 티웨이항공, 진에어 등 총 8개 항공사가 운항 중임

○ 중동사태의 항공편 영향

-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운항 항공사 모두 4월부터 항공료를 인상하였으며, 일부 항공사는 성수기 항공편의 운항 재기를 무기한 연기하여 2026년 한-몽 항공좌석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
-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라, MIAT 항공료는 아시아 지역 5~7% 가격 인상, Aero Mongolia 5%~10% 인상되었고,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,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 등도 유사한 수준으로 항공료가 인상됨
- 항공사들은 항공수요 진작을 위한 수하물증량(1+1), 의료관광객 대상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중이나, 현 중동사태가 지속될 경우 전체적인 여행수요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